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공공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15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넉넉한 품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주님, 늘 한결같지 않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교만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우리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질 때, 우리가 본래는 없던 존재이며 없어질 존재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과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주님,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특별히 가족을 잃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수백 년 된 나무와 땀 흘려 가꾼 논밭, 따스한 가정과 귀한 생명을 아끼지 않는 태풍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태풍같이 거칠고 광포한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평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시121:5,6 인도자

♣ 교 독 문 9. 시편15편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박경선 선생 II. 김재흥 목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286(통218).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다함께

성경봉독 I. 고전13:4-7 고정환 학생
 II. 호6:1-3 조관행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사랑의 인내 김재흥 목사
 II. 애써 주님을 알자 김기석 목사

- 찬 양 503(통373).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사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과 길이 되심을 명심하고 사십시오.
- 다 함 께 : 아멘. 주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채 ‘주님을 잘 안다’ 착각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되돌리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선교회 주관 예배	옴기 / 이성운 전도사
시므온 · 나오미 선교회	기도 : 권미숙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박소진 선생	박수민 학생
	김기석 목사	장영숙 전도사	곽상준 집사

9월	영접위원	김인걸 권혁순 홍순구 박혜경 안홍숙 권미정
	헌금위원	윤석철 안홍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사랑은 혼돈을 평화로 바꾼다 (3)

경축하기

사랑의 네 번째 양상은 경축하기다. 사랑하는 이에게 그의 가치를 드러내주거나 그들을 돌보고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사랑하는 것은 경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클라우디아와 같은 이들은 전문가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문제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도 웃음과 놀이를 필요로 하며 자신들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며 그들의 삶을 경축해줄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슈야파 공동체의 나디앤과 그곳 사람들이 클라우디아에게 선사한 기쁨과 편안함 때문에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방어막을 조금씩 낮출 수 있었다. 조금씩, 그녀는 자신이 나쁜 존재가 아니며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믿기 시작하였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그들의 부모와 가족에게 비극적인 존재로만 여겨질 수 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슬픔에 찬 얼굴을 보이거나, 때때로 동정어린 시선과 눈물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의 근원이다. 그들의 삶은 경축 받아야만 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부정적이고 깨어진 자기 이미지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복돋우기

사랑의 다섯 번째 양상은 복돋우기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끔 도와주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복돋아주는 것이다.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과 어떻게 행동할 지, 무엇을 선택할 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점점 배워야했다. 책임감을 느끼면서 다른 이를 존중하는 법도 배워야 했다. 클라우디아는 공동체의 구조를 관찰하는 법과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스스로 익혀야했다.

많은 봉사자들이 지적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 라르슈 공동체를 찾아온다. 봉사자의 역할은 산파의 역할과 같다.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돕고, 양육하며, 그 자신의 생애적 리듬에 따라 자라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르슈의 봉사자들은 장애를 가진 이들을 ‘정상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그들이 성숙해 나가도록 도울 뿐이다. 그러나 라르슈에 있는 사람들에 따라 그 성숙이 의미하는 바는 다를 수 있다. 나디앤과 다른 봉사자들의 역할은 클라우디아를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그녀를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활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클라우디아가 자신 안에 있는 자유를 꽃피우게 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격려했다. 그 비밀스러운 인생의 신비는 클라우디아 자신만의 것이기 때문이다.

클라우디아는 인생이란 상호적인 소속과 의존을 통해 이루어져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성숙하기 시작했다. 그런 삶에 대한 견해는 슈야파 라르슈 공동체의 핵심원칙이었다. 나디앤이 클라우디아 안에 있는 생명을 새롭게 이끌어 줄 때, 클라우디아 또한 나디앤 안에 있는 생명을 새롭게 이끌어 주었다. 이것을 클라우디아 스스로 발견하기 시작하며 그녀는 점점 성숙해졌다.

- 장 바니에, 『인간 되기』 중에서

사랑이란

그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것
그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해해주는 것
소통을 통해 내 자신을 주는 것
그의 생명을 경축해주는 것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것
사랑의 공동체에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
용서해주는 것

그냥이라는 말

조동례

그냥이라는 말
참 좋아요
별 변화 없이 그 모양 그대로라는 뜻
마음만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난처할 때
그냥 했어요 라고 하면 다 포함하는 말
사람으로 치면
변명하지 않고 허풍 떨지 않아도
그냥 통하는 사람
그냥이라는 말 참 좋아요
자유다 속박이다 경계를 지우는 말
그냥 살아요 그냥 좋아요
산에 그냥 오르듯이
물이 그냥 흐르듯이
그냥이라는 말
그냥 좋아요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장영숙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혜경 한상의
 정영선 김인걸 문영혜 김근종 정옥영 김일랑 이은옥 김경연 김중수
 이순정 김훈동 유경순 박영희 방민 배삼순 권호진 손성현 전월수
 정복순 방준 정재정 이건식 신영신 전웅 곽새롬 김정애a

월정헌금:

김승현 김수진 박범희 박미영 박준희 이기분 안길상 이형숙 왕수명
 윤성중 김윤정 윤주원 최윤선 이동천 이소순 이유선 방극숙 이은자
 이재구 황선희 장재영 김재영 정현숙 김지윤 임영 정경례 백성래
 문홍일 무명2

감사헌금:

이창수 김정섭 이증자 김극 김민용 최종훈 김금하 박병구 김정애
 조순덕 문희창 임영 정경례 신진식 백운기 강지은 이혜수 박범희
 박미영 민동혁 김수은 민서울 강순배 무명

녹색꿈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주희 김주현 송희원 홍순구 안홍숙
 장재영 김재영 최경미 무명

생일헌금: 문홍일 이지호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에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연합속회	장혜숙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노순옥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최경미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문영혜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최희영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백묘현
시온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희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이형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최영혜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선교회 주관 예배**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시므온 선교회와 나오미 선교회가 주관합니다. 말씀은 김동환 목사님(영국감리교회 소속)께서 전하십니다.
2. **교사교육** : 교회학교 3분기 교사교육이 오늘 오후 3시 15분에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3. **수요집회** : 9월 수요집회는 이성운 전도사가 읍기를 강의합니다.
4. **성서학당** : 성서학당 가을학기가 이번 주 목요일(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강합니다.
5. **속회** : 속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6. **결혼1** : 김대규 씨와 박경애 씨의 결혼예식이 11일(토)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결혼2 : 유상진 씨와 유은정 씨의 결혼예식이 11일(토) 오후 1시에 경북 군위 다발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9시에 교대역8번 출구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7. **신앙실천** :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청해 들어 보십시오. 또 그 이야기로 다른 누군가에게 웃음을 선사해 보십시오.

* 식당 봉사 : 다메섹 속 (다음 주 : 다메섹 속)

* 설거지 봉사 : 김승일 김경선 곽상준 (다음 주 : 권혁신 방수진 이건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